

새천년 과학고대의 도약 알린 과학도서관과 테크노컴플렉스



1996년 국내 최초 산학연 종합연구단지인 조성된 테크노컴플렉스 산학관(왼쪽)과 공학관. 단순한 직사각형 건물로 정면 대부분을 유리 커튼월로 덮은 산학관은 당시까지 존재했던 모교 건축물 중 가장 현대적 이미지를 가졌다. T-자형 평면의 공학관은 동서남측 입면의 창에 수평과 수직 차양을 설치한 점이 특징이다.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14

애기능 캠퍼스의 발전: 과학도서관에서 테크노컴플렉스까지

1960년대 이공대학 본관(현 제2공학관: 본보 2015년 2월호, 연재 9회 참조)의 건축을 시작으로 애기능의 자연계 캠퍼스에도 여러 건물들이 꾸준히 들어서고 있었다. 예컨대 1968년 실내체육관(농구장)이 세워졌고(2013년 철거), 이공대학 서관과 동관(현 공학관 별관과 이학관 별관)이 1971년, 농과대학 신교사(현 생명과학관 서관)가 1976년, 애기능 학생회관과 정보전산처가 1982년 건축됐다. 이 모두는 제각각 의미 있지만 캠퍼스 전체를 볼 때 과학도서관(1982~83)의 건축이 특히 괄목할만하다. 또한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개발된 테크노컴플렉스(1994~96)는 고려대학교 자연계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자연계 자체 과학도서관 건립 본교 최초 에어컨 설치 건물

건축과 박윤성 교수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설계된 과학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8,756㎡(5674평)의 규모였다. 본교 최초로 중앙집중식 에어컨과 여섯 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이름처럼 '과학고대'로 발돋움하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인 것이다. 또한 정보전산처에 이어 건물 외벽을 흰색 타일로 마감한 바도 신선한 시도였다. 그간 인문사회계에 비해 시설이 열악했던 자연계 캠퍼스는 이로써 자체만의 도서관을 갖게 됐고, 부족했던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다.

하나 이 건물의 개별적 특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웃 건물들과의 관계 및 캠퍼스 전체 속에서의 위상이다. 이 점은 건물의 평

면과 배치를 통해 알 수 있다. 남향의 이공대학 본관이 애기능을 뒤로 감싸는 얇은 C-자의 평면 형태를 띠고 있음은 전에 이미 서술했는데, 여기 대응해 애기능 건너 북쪽 언덕에 배치된 북향의 과학도서관은 평면이 이공대학보다 더 얇은 C-자다. 결국 두 건물은 남과 북에서, 아래와 위로 애기능을 감싸는 모양새를 취한다.

달리 말해 이공대학, 애기능, 과학도서관이 남북축을 이루며 자연계 캠퍼스의 중심을 잡아준 것이다. 실제 이 축의 양끝에는 남문과 북문이 놓이는데, 과학도서관 자체의 좌우대칭 평면도 캠퍼스 전체의 축적 구성과 조응한 결과다. 이 같은 양상은 1970년 전후 인문사회계에 먼저 적용됐던 마스터플랜의 원칙(본보 2015년 3월호, 연재 10회 참조)을 떠올리게 한다. 한편, 과학도서관은 2006년 완공된 한스퀘어와 지하에서 연결되는데, 이때 계단실의 동선 및 출입구가 리모델링돼 현재에 이른다.

90년대 지상명제로 과학교육 대두 국내 최초 산학연 종합연구단지

과학도서관의 완공 후 다소 잠잠했던 자연계 캠퍼스의 건축 활동은 1990년대 들어서며 다시 왕성해진다. 1992년 첫 신입생을 받은 공과대학 전파공학대를 위해 이듬해 전파공학관이 들어섰고(2013년 철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기초과학지원센터 서울본소의 본교 개소로 같은 1993년 기초과학관이 세워졌으며, 비슷한 시기 다양한 종류의 실험실 건물도 여럿 건축됐다. 당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교육이 대학의 절실한 명제로 부상한 가

운데, 상대적으로 뒤늦게 시작된 본교 이공계통의 교육과 연구가 크게 촉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의 정점을 찍은 것은 서두에 언급했던 이른바 '테크노컴플렉스(Techno-Complex)'의 조성이다. 이것은 국내 대학 최초의 산·학·연 종합연구단지로서 공학연구동(공학관)과 산학연구동(산학관)으로 이뤄졌는데, 학교가 대지를 제공하고 산업체가 거액을 출자함으로써 가능했다. 과학도서관 서측의 부지에 1992년부터 계획된 테크노컴플렉스는 삼우종합건축의 설계에 따라 1994년 2월 착공해 1996년 6월 완공된다.

공학관은 T-자형 평면 바탕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8,650㎡(약 5,640평)의 규모를 가지며, 외벽에는 전체적으로 밝은 회색빛 타일을 부착했다. 이 건물의 주요 특징이라면 북측을 제외한 동서남측 입면의 창에 수평과 수직의 차양을 설치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직 차양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 기능성에 세련미를 더했다. 또한 긴 날개 남쪽 모서리의 모를 따 청색 프레임 구조로 대체한 것은 작으나마 건물의 조형성에 기여한다.

산학관은 단순한 직사각형 평면에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22,870㎡(약 6920평)를 갖는 건물로 모서리를 제외한 정면 대부분이 유리 커튼월로 덮였다. 그리고 직사광선을 걸러주기 위해 유리면 앞에 설치된 금속제 비늘 루버는 기계주의적 인상도 부여한다. 연재 12회분에 시사했듯, 당시까지 존재했던 본교 건축물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진 셈이다.

**테크노컴플렉스와 이학관
새천년 앞둔 캠퍼스 현대화 이뤄**
테크노컴플렉스 조성과 같은 시



1983년 완공 당시의 과학도서관. 본교 최초 중앙집중식 에어컨이 설치된 이 건물은 당시 과학고대로의 도약의지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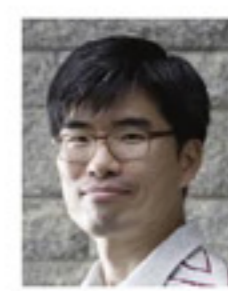


현대그룹의 기증으로 1996년 건축된 이학관. 정면 출입구의 네 개의 붉은색 원형기둥은 2012년 리모델링으로 사라졌다.

기에 현대그룹의 기증으로 건축된 이학관(1994~96)은 고 정주영 회장의 호를 따 '아산(峨山) 이학관'으로도 불린다. 설계는 기초과학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중업종합건축이 담당했다.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9,740㎡(5971평) 규모의 이 건물은 창호를 제외한 벽면 대부분이 타일로 마감됐고, 정면은 산학관처럼 상당 부분을 유리 커튼월이 덮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정면 출입구에 2층 높이로 솟은 네 개의 붉은색 원형기둥이다. 이것은 무채색의 벽면이나 짙은 청색 계열의 유리면이 주조였던 고려대학교 캠퍼스 경관 속에서 다소 도발적인 시도로 일한다. 고대생이 추구하는 '크림슨의 붉은 정열'을 상징한 몸짓일까?

곧 원형평면의 애기능 생활관(1997~99)이 뒤따르긴 했지만, 테크노컴플렉스와 이학관의 완성

으로 새천년을 맞이하기 이전 자연계 캠퍼스의 현대화 작업은 우선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 산학관에는 여러 기업의 연구소가 입주해 학교와의 협력연구를 긴밀히 하게 됐고, 공과대학과 이과대학은 각각 공학관과 이학관으로 이주해(이때 기존의 이공대학 본관은 '제2공학관'으로 새 삶을 맞이한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자연계 캠퍼스는 여러 면에서 또 다른 도약을 보인다. 그 가운데 이학관은 2012년 여름 리모델링을 마치고 화강암 판석으로 옷 입게 됐는데, 이때 붉은 기둥도 사라진다.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